

KOKKOS 11

NOV 2024 VOL. 271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최정권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 www.bible.ac.kr

「학생-교수 간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한 컴소학과 1학년 새내기 7명. 『상반신 모션을 활용한 위급상황 판단 딥러닝 모델 연구』(한진호 교수 지도)에 도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연, 이정현, 한진호 교수, 신수아, 한기준, 김수아, 여환서) [관련 기사 3면]

2024년 8월 대학정보공시

학생충원율 단연 선두, 중도탈락율은 하위권으로 추락

13개 항목 중 5개 항목은 ML그룹*, 2개 항목은 하위

평가감사실(실장 임지영 교수)은 지난 17일 우리 대학의 '2024년 8월 대학 정보공시'를 발표하였다.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 교육부가 모든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수합하여 발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발표된 공시 항목은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6개 항목 ▲ 학생 현황 관련 4개 항목 ▲ 전임교원 및 연구관련 6개 등 모두 16개 항목이다. 우리 대학은 그 중 5개 항목은 ML(상위 20%이내)그룹*에 속하였고, 2개 항목은 최하위 수준, 나머지는 중간 그룹에 위치하고 있다.

소규모 강좌 비율은 90.5%로 전년 90.3% 대비 0.2% 증가하였다. 우리 대학의 위치는 111위(60.7%)로 22년 64위, 23년 109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70.2%로 전년도 대비 1.3% 떨어졌지만 전국 183개 대학 중 57위, 수도권 71개 대학 중 9위(12.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사 강의료는 5만8천 원으로 모든 대학그룹 평균 중 가장 높았다. 우리 대학은 가장 엄격하게 학점을 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공과목의 경우 A학점 비율은 전국 대학 평균이 44.5%인데 비해 우리는 28.8%로 전국 순위 12위(6.6%)이다.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은 모두 100% 이상으로 단연 선두에 있다. 반면 중도탈락율은 8%로 전년도 대비 2.3%나 증가하였고 전국 대학 중 138위, 수도권 71개 대학 중 63위로 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장학금 비율은 18.3%에 118위로 대학 평균보다 다소 밀도는 수준이다.

전임교원확보율은 81.5%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였고 전국 평균 79.1%, 수도권 평균 77.4% 보다 월등한 수치를 나타냈다. 저역서 실적, 국내논문 실적은 모든 대학 그룹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저역서 실적은 전국 19위, 수도권 6위이며, 국내논문 실적은 전국 9위, 수도권 4위이다. 국외논문 실적은 전국 대비 133위로 하위 30% 선에 머물고 있다.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는 146만 원으로 전국 대학 대비 95위로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교외연구비는 858만 원으로 138위, 낮은 수준이다.

*ML은 Major League의 약자로 야구의 최상위급 구단을 의미한다. 우리 대학은 2005년 '대학을 평가하는 모든 지표에서 상위 20% (major league)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표 중심의 행정을 전개해 왔다

한국성서대학교 2024년 8월 대학정보공시

구분	번호	공시항목	순위	지표값	비교대학수 (4년제 대학)	위치	ML/중/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학생 규모별 강좌 비율	111	90.5	183	60.7%	중
	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57	70.2	183	31.1%	중
	3	강사 강의료	27	58.0	149	18.1%	ML
학생현황	4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1	100.4	183	최상위	ML
	5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1	100.0	183	최상위	ML
	6	중도탈락 학생 현황	137	8.0	183	75.4%	하
	7	장학금 비율	118	18.3	182	64.8%	중
전임교원 현황 및 연구현황	8	전임교원 확보율	49	81.5	183	26.8%	중
	9	저역서 실적	19	0.14	183	10.4%	ML
	10	국내논문-연구재단 등재지	9	0.87	183	4.9%	ML
	11	국외논문-SCI급 SCOPUS학술지	131	0.06	183	72.7%	중
	12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95	1461.9	183	51.9%	중
	13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138	8580.2	183	75.4%	하

* Major League : 상위 20.0% / 중 : 상위 20.1% ~ 상위 75.0% / 하 : 상위 75.1% ~ 상위 100%

커버스토리

컴소 1학년 새내기 7명 「학생-교수 간 공동 프로젝트」에 도전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
「학생-교수 간 공동 프로젝트」 중간 보고회



윤혜진 센터장 (교수학습센터) 이 각 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4학년도 「학생-교수 간 공동 프로젝트」 중간 보고회가 30일 일립관 101호에서 진행되었다. 윤혜진 센터장(교수학습센터)이 각 팀의 진행 상황을 일괄적으로 보고하고 내년 1월에 결과 제출까지의 과정을 안내하면서 시작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12개 팀(성서1, 영보3, 컴소1, 간호6, 기초교양 1팀)에 전체 86명(팀당 학생 5~8, 교수 1)이 참여하고 있다. 김형미(영보) 교수의 '키즈카페'팀은 '서울시 공공형 키즈카페 놀이시설 분석'을 주제로 가장 많은 8명이 참여 중이며 양단아(컴소) 교수팀은 논문 '효율적인 안정성 트레이닝...' 등 3편을 목표로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특별히 한진호(기초교양) 교수팀에서는 컴소학과 1학년 새내기 7명의 학우가 당찬 도전에 나섰다. 이들은 'CNN'프로젝트로 차량 운전자의 얼굴 표정과 상반신 모션을 관찰하여 자율운전과 위급상황을 판단하는 딥러닝 모델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3회째인 「학생-교수 간 공동 프로젝트」는 제자의 성장을 돕는 교수들의 헌신과 더 배우고자 하는 학우들의 열정이 더해지면서 KCI 등재, 학회지 논문 게재, 및 교재 출판 등의 성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제간의 유대 강화, 학습 역량 향상, 교내 연구 문화 확산 등으로 우리 대학만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 20 회 컴소학과 졸업작품전 총장배 SW 공모전

총장배 대상, 김지예 'SWOT finder'



최정권 총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제 20회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졸업작품전」 및 「제19회 총장배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수상작이 31일 밀알관 고승태홀에서 전시되었다. 4학년 컴소 학우들이 IT 역량을 기반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효용성, 편리함을 담은 작품 22점(개인 16, 공동 6)이 전시됐다.

김예나 학우의 'PageStorage'는 사용자의 독서 기록 공유와 요구에 따라 원하는 책 추천이 가능한 맞춤형 BookSNS로 호평을 얻었고, 성민창 학우의 'SFC(Station Fast Court)'는 대중교통 주변 식당가에서 예매 시간으로 소비를 망설이는 고객에게 대기시간 안내로 참신성과 편리성을 잡았다.

총장배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는 대상에 김지예 학우의 'SWOT finder'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캡스톤에 이주찬, 윤건용 학우의 'Crowded'이며 김우성(1), 임선구(3)의 'BibleHelper'가 수상하였다.

대상의 'SWOT finder'는 창업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SWOT 분석 수행 후 결과까지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 독창적이고 완성도도 높아 선정되었다. 'Crowded'는 MCNN모델 기반으로 군중 밀집도 모니터링을, 'BibleHelper'는 성경퀴즈 게임 모바일 앱을 구현한 작품이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진정한 종교개혁’

종교개혁 기념 크리스천 데이 각종 행사

‘천진낭만’ 체육대회
백팀(사복·컴소·간호) 7:2로 승리
지난해 패배 설욕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2024년 크리스천 데이 기념예배와 다채로운 행사가 31일 다음 총학(회장 채경훈)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종교개혁기념예배에 강규성 목사(교목실장)가 ‘진정한 종교개혁’(대하 34:14~16)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본질은 성경대로 살자는 것이며 이는 사회변혁과 경제까지 영향을 끼친 대사회변혁 운동이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언약에 충실하고 맞는 삶을 살려고 자신을 찢는 회개로부터 시작됐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따른 크리스천의 문화 확산, 섬김과 봉사로 빛과 소금이 될 때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데이에 맞춰 교내 곳곳에는 동아리와 취미반, 학회 등이 부스에 간단한 먹거리와 간식, 음료 및 프리마켓 등으로 시선을 끌었고 잔디밭에는 야외 벤치와 소형 텐트, 쿠션으로 침과 휴식을 갖도록 배려하였다. 로고스홀에서는 숨겨진 끼와 기량 발산의 장기자랑이 열기를 띠었다. 초청 아티스트 무대로 CCC가수 이정현이 ‘예배하는 이들에게’와 ‘다시 살아갈 삶을’ 크리스천 유튜브 Wayhome 이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와 ‘축복해 사랑해’를 부르며 감성에 젖게 하였다.

11월1일 독성 한강공원에서 진행된 ‘천진낭만’ 체육대회는 9개 종목을 놓고 흑백전(흑팀/ 성서·영보, 백팀/사복·컴소·간호)이 뜨겁게 펼쳐졌다. 농구, 발야구, 배드민턴을 비롯해 축구, 혼성계주 경기 등이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백팀이 7:2로 완승. 1년 전 당한 패배를 완벽히 되갚으며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총학은 막간에 림보와 제기차기, 공 넣기로 시선을 끌었고 특히 교내 댄스동아리 AWP가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 수준급 댄스 실력을 선보여 지켜본 학우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우즈베키스탄 데이 행사

낮선 유학 생활 위로, 서로 간 소통의 자리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학우들이 교정 잔디밭에서

국제교육원과 한국어교육센터 주최로 ‘제1회 우즈베키스탄 데이’ 행사가 21일 오후 교내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울다세브 토히르베크(컴소 1, YULDASHEV TOKHIRBEK)학우 외 어학연수 중인 12명과 본교 학생 등 15명이 참석했다. 유학생들은 잔디밭에서 우즈베키스탄 음식으로 함께 점심을 나누며 소통을 이어간 후 풋살장에서 축구 경기로 그동안 쌓인 각종 스트레스를 날려 보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구 소련연방에서 독립 후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중앙아시아 중부에 위치하며 고대 실크로드 교통 요충지이다. 448,924km²의 국토는 한반도의 2배에 달하며 인구 3천6백만, 수도는 타슈켄트이다.

신학대학원 종교개혁세미나 김요섭 목사

대속의 은혜, 부활의 확신을 갖는 삶의 예배로

신학대학원이 주최한 종교개혁 기념예배가 31일 저녁 로고스홀에서

김요섭(총신대 교수) 목사의 '종교개혁과 예배 회복'을 주제로 설교와 세미나가 연이어 진행되었다.

김 목사는 종교개혁은 16세기 독일과 유럽에 종교와 문화 사회변화를 몰고 온 개혁 운동이다.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거짓 종교를 질타하고 기독교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을 주장하였고 칼빈은 말씀인 성경의 회복이 기독교 신앙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하였다.

김 목사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확신, 회개와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배 후 각 대학원별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일반대학원과 신학대학원

주제 : 종교개혁과 예배회복 / 강사 : 김요섭 교수(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주제 : 지역사회에서의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복지 개입 활동 현황과 전망 / 강사 : 김연은 회장(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장)

보육(교육)대학원

주제 : 어린이집의 민원 이해와 보육 교직원 권리보호 / 강사 : 권기남 교수(오산대학교)

제 22 회 일립신학연구소 학술세미나 개최

안창선, 최사랑 교수가 논문 발표

제22회 일립신학연구소 학술세미나가 30일 오후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박태수 교수가 '신학의 역할'(요8:32)로 말씀을 전했고 안창선, 최사랑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였다.

안창선 교수

제목: 안식일에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살려본 아들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이성전기 문헌과 요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일립 강태국 박사는 저서 「나의 증언」에서 "하나님은 노동이시다"고 말했는데 복음을 위해 평생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삶의 근거와 모태로 작용했다. 안식일에도 생명 관련, 의로움과 악인 심판은 이행됐고 예수님의 병자 치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한 생명을 살리고 심판하는 일이다. 예수는 세상의 근원이며 믿는 자에게 변화와 확신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임을 제시한다.

최사랑 교수

제목: 신학과 심리학 사이에서 목회 상담의 정체성과 신학교육적 과제

목회상담이 토착 과정에서 심리학 수용을 놓고 신학계의 비판과 정체성 논의 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목회상담은 상담, 내담자가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자기 인식과 영성으로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성서, 조직, 역사신학과 유기적 관계로 정체성과 균형점, 소신을 갖춘 복음주의자로서의 포용도 요구된다. 넓은 학문적 배움과 기독교 세계관, 영성 결합이 본질을 다하게 될 것이다.



학술세미나를 다 마치고 모든 참석자가 파이팅을 외쳤다.

‘가족구원워크숍’ 노경찬, 송성은(CCC 간사) 진행

노경찬-“포기하지 않는 지속성”
송성은-“심층 탐험가의 자세 필요”

학우들의 불신가족 구원을 돕기 위한 가족구원 워크숍이 23일과 30일 교회 음악연습실에서 열렸다. 23일 광운대 CCC 노경찬 간사, 30일 경희대 CCC 송성은 간사가 진행하였다.

노경찬 간사는 ‘관계전도(PCS전도)’을 주제로 먼저 Prayer & Care(기도와 돌봄)로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 후, Share(공유, Gateway 어플 - 영상자료 활용법)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코치하였다. 그는 Gateway 어플을 통한 소통과 나눔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특히 가족이라서 사소한 언행에 상처받기 쉽다며 포기하지 않는 지속성을 강조했다.

송성은 간사는 ‘CoJourners(여행을 함께 하는 사람들)’로 영적 여행방법을 나눴다. 우리는 심층 탐험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관심사,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 등을 살피며 간증과 삶의 변화된 모습 등을 통해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브릿지 빌더(기도, 권면을 통해 영적 장애물 넘도록 도움), 신앙 멘토와 연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워크숍에는 20명의 학우가 참석했다.

성서인의 밤, “거룩한 자가 되라”

윤두태 총동문회장 설교



성서인의 밤 행사가 31일 저녁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윤두태 총동문회장이 ‘We are different’(시110:3)로 말씀을 전했다.

윤 목사는 “우리 대학은 시대와 야합이 없는 성서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고수해 왔다. 우리를 부른 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이며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유태인은 유년기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며 ‘We are different’의 의지와 분별로 최고 민족이 됐다. 세상과 구별된 주의 방법을 좇아 헌신하는 새벽이슬 같은 거룩한 후배가 되라”고 말하였다.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고 동문 선·후배가 목회 진로와 학업 고민등을 질문하며 우의를 다졌다. 질문 시간을 가졌다.

컴소인의 밤 “단단하고 의리있는 컴소학과로”

정병수 동문회장 격려

제22회 ‘컴소인의 밤’이 31일 오후 6시 갈멜관 305호에서 진행되었다.

김원빈 컴소 학과장은 “선·후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학교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끼치는 성서대 컴소인이 되어 달라”고 인사하였다. 정병수 동문회장(09학번)은 “동문들이 함께 힘을 더해 단단하고 의리있는 우리 학과를 만들어 가자”고 격려해 주었다.

재학생들은 학년별로 숨겨진 끼와 재능을 선보여 질펀한 웃음과 재미를 선보여 큰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경품 추첨으로 모두에게 푸짐함을 안겨주었다.

임경미 교수 ‘구리 FM’(105.7Mhz)방송 고정 출연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와 동일 제목으로



코코스지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를 연재해 온 임경미 외래교수가 9월부터 경기도 구리시 일원에서 방송되는 ‘구리 FM’(105.7Mhz)에 동일한 제목으로 고정 출연하고 있다. 일정은 첫 방송일인 9월 23일부터 매 3주 마다 1회(오후 2~3시)이며 해당 주간에는 월요일~주일까지 고정 송출된다.

임 교수는 선정된 시를 직접 낭송하면서 작품에 담긴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 등을 청취자에게 전하고 선곡된 노래까지 방송하고 있다. 첫회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을 선택, 사람의 소중함을 전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맞이하자는 내용으로 지친 청취자들의 가슴을 잔잔하게 위로해 주었다.

연말까지의 방송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11(월)~17(주일) / 12.02(월)~08(주일) / 12.30(월)~2025.01.05

“복음전도자 양성의 결기 지속돼야”

연말을 맞아 학교를 돕는 뜨거운 손길들



▲ 심건식 장로, 심재경 권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심건식 장로가 3,000만원을 후원하였다. 심 장로는 총장실에서 선지 학교를 돕도록 마음에 강한 전율이 일어나 뜨거웠다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 “학교가 힘들지만 복음전도자 양성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심 장로는 미국 PG&E사의 구매담당 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은퇴 후 글로벌 전력 관련 컨설턴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 오 에스더 박사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교수인 오 에스더 박사가 미화 1만 달러를 후원하였다. 오 박사는 본교 설립자 강태국 박사의 차녀 강혜정 사모의 장녀이다. 그는 “오래전 초등학교 때 외할아버지(설립자 강태국 박사)가 추운 겨울인데도 전기를 아껴써야 한다며 난방을 안 켜서 집이 냉골이었다. 너무 추웠던 나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학교를 도울테니 난방 좀 틀어 달라고 했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2004년 이래 학교에 1억 2천만 원 이상을 후원해 왔고 아직도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 이철희 이사

본교 법인 이사인 이철희(연세대 교수) 이사가 5백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 이사는 “성서의 본질을 고수해 가는 우리 대학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다”며 많은 후원이 이어지길 희망하였다. 이철희 이사는 올 3월 국제전기통신연합 방송 서비스연구반(SG6)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섬기고 있다.

선한 후원으로 학교 공간이 채워 지길...

대외협력팀, 성서공동체에 간곡히 요청

대외협력팀(팀장 이강동)이 연말을 앞두고 공동체에게 후원의 불빛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팀장은 “학교 후원은 950명의 개인과 가족, 후원자의 기관과 교회 및 사업체를 통해 월 1만~1백만원 까지 평균 6천여만원이 모금된다. 별도로 후원해 주는 분이 있지만 올해 급격히 줄어 목표 13억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 업무를 감당해 온 기획실 김현동 팀장도 “결산 4개월 남은 현재 상황이 매우 안 좋다. 예산 집행 부서들과 고강도 긴축안을 수립하는 상황이다.

이 팀장은 “학교 후원이 한 사람의 밑알을 주의 인재로 성장시켜 세상에 공헌케 하는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말하였다.

* 기부 및 후원 문의 (매월 1만 원부터~)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5-01-0178-931 / 한국성서대학교

- 대외협력팀 : 950-5599 / 5517 / 010-5417-3651

2024년 FT. '공동체통합'역량 큰폭 향상

종합 만족도는 10점 이상 하락

2024년 학년초(3/11-13)에 실시한 FT에서 참가자들의 '공동체통합역량'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발간된 「FT공유 및 확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학우들의 '공동체통합 역량'이 23년 72.7점에서 올해 84.3점으로 크게 올랐다. 세부 역량으로 '공동체소통능력'은 84점, '공동체의식'은 84.6점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공동체통합역량'은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인 「복음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6대 핵심역량 중 하나이다. 달성 척도는 전 학년이 80점 이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FT의 종합만족도는 73.8점으로 2023년도의 84.2점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운영만족도가 68.2로 낮았는데 이번 FT의 강조점이 '학생 주도형'이라는 점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어 냈는지는 깊이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운영만족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운영일정'은 70.5점 '시간배정 만족도'는 65.3점, '진행방법'에 대한 만족이 69.2점이었다. 반면에 외부 인사들이 주도한 프로그램은 비교적 좋은 반응을 보였다. 주제 강연(76점), 메인 특강(80.2점), 선택 특강(봉사-88점, 교양-78.8, 연애 및 결혼 77.6점) 등과 문화공연의 콜링라이어(80.6점)와, PEtER 공연(79.0점) 등이 평균 80점대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FT에 대해 참가자들의 미지근한 반응은 프로그램을 이끈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음전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의 목표, 「복음전도자」는 어떤 인재(인재상)이어야 하는가, 그들이 갖추어야 할 6대 핵심역량, 그중 FT가 추구하는 1개 혹은 복수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그 핵심역량을 FT에서 어떻게 단련해 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 한 줄기로 이어가는 치밀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4-2학기 무감독시험 비율 41.3%

일립교육과 100%, 컴소학과 0%

2024-2학기 중간고사 지필고사 중 무감독시험 비율은 41.3%였다. 143강좌 중 59개 강좌가 무감독 시험을, 나머지 84개 과목은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4-1학기 중간고사의 무감독시험 결과는 40.1%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무감독시험은 우리 대학 시험의 원칙이며 복음전도자의 삶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양심과 정직함을 숙련해 가는 자리이다. 일립교육과는 12개 강좌 모두를 무감독시험을 실시한 반면 컴소학과는 14개 강좌 중 한 과목도 무감독 시험을 하지 않았다. 각 학과별 무감독시험 실태는 표와 같다.

2024-2학기 중간고사 시험유형 현황

학과	지필						실기/실습		과제		합계
	감독		무감독		소계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일립교육과	0	0.0	12	100.0	12	100.0	0	0.0	0	0.0	12
기초교양교육과	26	78.8	7	21.2	33	73.3	8	17.8	4	8.9	45
성서학과	4	19.0	17	81.0	21	91.3	2	8.7	0	0.0	23
사회복지학과	16	88.9	2	11.1	18	85.7	2	9.5	1	4.8	21
영유아보육학과	9	39.1	14	60.9	23	92.0	1	4.0	1	4.0	25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14	100.0	0	0.0	14	87.5	1	6.3	1	6.3	16
간호학과	15	68.2	7	31.8	22	40.0	29	52.7	4	7.3	55
합계	84	58.7	59	41.3	143	72.6	43	21.8	11	5.6	197

* 중간고사 미진행 강좌(경건훈련, 밀알훈련, 전도훈련, 진로, 바이블리딩, 인턴십) 제외



최정권 총장

11월입니다

11월이 찾아왔고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총장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과 신임 총장을 도와주신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늘 기도로 함께 해 주신 이사장님과 보물 같은 우리 학생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인공지능학과의 신설에서 생활관 개선과 오랜 학내 문제였던 주차와 식당 그리고 GS 입주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한 저의 기도 제목인 금년 수시와 정시를 통한 미래 인재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일과 그들을 훈련시킬 우리 학교의 준비입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되는 과정에 떠오른 얼굴은 저의 할머니였습니다.

지금은 오십 중반이 된 막내가 태어날 때 저는 당시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막내의 출생과 함께 독수리 오 형제의 완성은 이루어졌지만 넉넉지 않은 살림에 막내까지 더해진 집안 분위기는 밝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막내를 굳이 보고 싶어 한 아버지의 소원은 딸이었습니다. 딸을 바라고 마지막 모험을 했던 아버지는 4명의 아들과 함께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밝지 않았던 분위기를 갠 건 막내의 태출을 꿈던 할머니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삼신할머니가 다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나게 한다. 걱정하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바른 신앙을 가진 분도 아닌데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씀하신 할머니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삼신할머니가 먹을 것 주신다는 할머니가 생각나는 이유는 대학이 처한 만만하지 않은 재정 문제일 겁니다.

사교협에서 만난 대학 총장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총장님은 대학 운영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돈이 지요?” 큰 대학이나 작은 대학이나 규모 관계없이 다 필요한 건 재정일 겁니다. 재학생은 줄고 신입생 모집은 어렵고 등록금은 못 올리는 구조에서 재정이 자유로운 대학이 얼마나 될까?

설립자가 쓴 「나의 증언」의 학교와 관계된 대목에서, 총장이 된 저에게 위로를 준 글은 “이 학교의 설립자가 하나님이고 이 학교의 총(학)장이 예수님이요 이 학교의 교과서는 신 구약성경”이라는 글입니다. 학교의 사명도 위대한 정치가나 실업가 학자를 배출하는 것보다 천국복음을 이루는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총장이 주님이시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총장이신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고 그분의 계획 속에 선하신 뜻이 하나씩 이루실 것이고 땅의 총장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뿐입니다. 총장의 위치는 다른 위치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건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의 지배가 커질수록 믿음의 자리는 약해 지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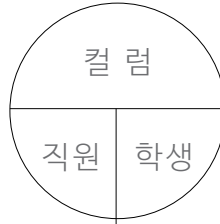
성경의 선배들중에 여호수아는 정말 미지의 땅을 가야 할 불확실성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한 언어로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형통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형통의 길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1:8절)

총장의
편지



여진희 직원 (법인사무국)



뜻밖의 재능 발견

나는 동적인 사람이다. 운동을 좋아하고, 캠핑과 등산을 즐긴다. 이런 나에게, 또 다른 취미가 생겼다. 입사 후 몇 개월 뒤, 크고 화려한 호접란들이 개교기념 축하화분으로 법인사무국으로 도착했다.

한 번도 식물을 키워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나에게, 그것은 너무나 큰 걱정거리이자 미션 같은 것이었다. 개교를 기념해 보낸 축하 난을 시들게 해서 죽게 한다는 것이 왠지 직원으로서 직무 태만 일 것 같았다. 왕초보인 내가 떠올린 방법은 유튜브! 호접란 키우기를 검색해 동영상 주의를 깊게 살펴봤다. 키우는 방법을 배우며 유명하다는 채널도 구독하기 시작했다.

축하난은 반드시 분갈이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주말에 사무실에 나와 작업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호접란 화분에는 호접란 이외에 다른 식물도 함께 심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진을 찍어 이름도 알아보고 키우는 방법도 익히다 보니 식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만 갔다. 채광량이 충분해야 꽃을 피운다길래 사비를 털어 리눅스가 높은 식물등과 맞춤 화분까지 구매했다. 그렇게 서서히 식(植)집사가 되어갔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는 식물을 상대로 자주 다정한 말을 건넬 정도까지 되었다.

“어머나, 또 새순이 돋았네! 네가 너무 고생했다야!”

“애들아, 주말 잘 지내고 있어~ 언니 보고 싶어도 참아!”

“세상에! 꽃을 피우네? 너희들 대단하다! 장하구나!”

이렇게 혼자 말을 건네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 누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겠지...?

하지만, 정성과 애정을 듬뿍 받고서 마침내 예쁜 붉은 색 꽃을 피워준 그들을 보며 정말 대견한 생각이 든다. 새로 돌아난 연하고 보들보들한 새싹들을 만지고 있자면 너무나 뿌듯하고 대견해서 어쩔 수 없이 식물들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점점 식물원이 되어가는 법인사무국이 걱정스럽지만, 나는 여전히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힘내라며 기운을 불어 넣는다. 모든 생명체마다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증명되는 걸 느끼면서.



임현정(성서3)

나의 소망

나는 대인관계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바로 표현하지 않고 고민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래서 요즘처럼 바쁜 일상 중에는 이 감정이 정말 달갑지 않게 느껴진다. 나의 하루 일과는 이렇다.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서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두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성서대학교로 간다. 하루 3과목의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가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마무리한 후에 잠을 잔다. 그리고 틈틈이 과제 준비, 퀴즈 공부, 동아리 활동을 한다. 학업과 양육이라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것이 보람 되면서도 버겁게 느껴지는 뻘뻘한 일상이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종종 생기곤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가 능숙한 둘째 딸이 새로 사귀 친구와 친구의 엄마를 처음 만났다. 딸이 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딸 친구의 엄마가 “시은아 영어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말한 순간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영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그 엄마의 모습이 매우 실망스러웠다. 결국 바쁜 삶에 지쳐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나는 이 관계를 위해 애쓰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문득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책을 읽고 했던 기도가 생각났다. 저자 하워드 헨드릭스는 “친한 친구란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당신의 매우 이상한 생각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고, 당신이 귀를 기울이고 들도록 당신을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친구가 되어 주고 싶다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이 고민을 친구에게 나누었고 불편함조차 표현하는 건강한 소통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학업과 양육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나를 실망스럽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일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잘 들어주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지난 화요일은 참으로 기나긴 하루였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한 하루 일과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사랑하는 교우들의 안타까운 처지와 아픔의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저는 가족 중에서 ‘암’ 판정으로 어려움 겪은 일이 없다 보니 사실 크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마주하는 교우들이 여기저기에서 ‘암’과 싸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마음에 큰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거라는 사실이 맞다해도, 지금은 교우들이 처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거둬 주시길 간청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번 주간은 유난히도 새벽기도 시간에 성도님이 흘리신 눈물의 기도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홀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믿음의 식구를 위한 기도였을 겁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어 찬송을 불렀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시77:6) 왜 시인이 밤에 노래를 불러야 했을지, 그가 어떤 간구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을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밤에 부르는 찬송은 처량했습니다. 그리고 애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한참을 부르고 나니 아픈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고요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반 목사야, 내 사랑이 네 사랑보다 적겠니?”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보다 우리 교우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죠!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시 124

늪은 꽃 문정희

어느 땅에 늪은 꽃이 있으랴
꽃의 생애는 순간이다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종족의 자존심으로
꽃은 어떤 색으로 피든
필 때 다 써 버린다
황홀한 이 규칙을 어긴 꽃은 아직 한 송이도 없다
피 속에 주름과 장수의 유전자가 없는
꽃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오묘하다
분별 대신
향기라니



<https://namjung53.tistory.com/632>

‘나이’를 “사람이나 생물이 나서 살아온 햇수”라고, ‘늪다’를 “나이를 많이 먹다”라고 사전은 정의한다. 살아온 햇수가 많으니 ‘늪다’라는 단어에는 “오랜 시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노련하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으리라.

시인은 시집 《다산의 처녀》에 <늪은 꽃>을 수록하며, 세상에 늪은 꽃이 없듯이 사람 또한 늪은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존재 그 자체로 이미 눈부신 꽃이라고 말한다.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종족의 자존심으로 꽃은 어떤 색으로 피든 필 때 다 써버린다. “목숨이란 순간을 피우는 눈부신 꽃이다!”



자유, 숲이 바람을 만나면

숲 최정권

제 생애 가장 큰 그림을 헤세드 식당 벽면에 그렸습니다. 흰색으로 구성된 두 개의 공간과 그 공간 가운데 있는 회색 공간을 하나로 만들어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 자유, 숲이 바람을 만나면 입니다.

어릴 때 엄마를 따라서 간 엄마의 친정집 뒷산의 숲은 무서웠습니다. 한낮에도 어두워 보였고 한밤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눈에 무서움의 상징이던 숲이 이젠 숨이 되고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숲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숲은 우리의 상식대로 나무가 무성한 공간을 묘사하는데 그런 숲은 인간이 뚫고 지나야 하는 험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주의 바다 위 바위가 외국의 산에 있는 바위를 만났고 제주의 나무와 포천의 숲이 서로를 안고 있는 형국이 될 겁니다. 총장의 지해를 위해 목상의 재료가 된 느브갓네살이 본 나무와 학교 교정에서 뽑아낸 잡목이 하나가 되어 그려졌을 겁니다. 그렇게 그려진 나무숲 위에 바람이 들어갑니다. 죽어있던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풍차가 되고 길게 누운 풀들이 일어나 춤을 추고 하늘을 뻗어 있는 나무들까지 그 육중한 몸을 흔들게 되는 바람이 불니다.

자신이 나무가 되어 간다고 믿는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영혜 말이 생각납니다.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햇빛만 있으면...”

제 그림 속의 나무는 바람이 있어야 삽니다.

어린이집 야외 놀이터에서 가든 스쿨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어린이집

‘찾아가는 가든 스쿨’

4일, ‘찾아가는 가든 스쿨’을 진행했다. 서울시 주최, 초안산 가드닝 센터 협조 프로그램으로 노원구에서 유일하게 만5세 소망반이 선정됐다.

정원 활동은 아이들의 정서 조절과 행복감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화 ‘나에게 정원이 있다면’을 감상하고 공기정화 식물인 ‘수박 페페’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고 돌에 그림을 그렸다.

이를 통해 식물 양육법과 기후변화에 대한 신체적 치유에 유효함을 깨달았다. 나만의 작은 화분을 만들며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책임감도 느꼈다. 정원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생태 감수성, 사회성을 높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나도록 지원을 다짐하였다. [소망반 노민지 교사]

소모임 함께라면 회원이 어르신에게 라면봉사를 진행중이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남성 소모임 ‘함께라면’

23일, 7명의 결식 어르신에게 라면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남성 소모임 ‘함께라면’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모임은 남성 고립 위험 가구 주민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회에 나오는 것에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계가 이어져 삶의 경험 등을 나누며 인생의 빛이 되고 있다. 이후 ‘함께라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모임을 만들었다.

항상 도움 받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도움 주고 싶은 마음에 비록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정성과 진실한 마음이 담긴 음식에 어르신들도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라면 나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고립 위험 주민들이 더 함께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복지서비스팀 문유나 주임]

부모와 함께 조물딱 점토놀이에 열중하는 유아들.



꿈빛어린이집

부모 참여 수업

15일, 영유아로 나누어 부모 참여 수업을 가졌다.

부모님과 함께 벼 베기, 농작물 수확하기, 동물 농장 놀이, 트랙터 타기로 낱선 ‘농촌 체험’이었지만 큰 즐거움을 주었다. 대형 땅콩 신체 교구를 이용한 징검다리 건너기, 기차놀이를 비롯, ‘조물딱’ 시간에는 부엉이 점토 저금통도 만들었다. ‘개구리 버거’ 만들기 요리와 생화를 이용해 가든 만들기에 참여했고 정글에서 영어를 배우는 보물찾기도 했다.

이번 ‘부모 참여 수업’은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유아 눈높이에서 직접 경험하는 새로운 관점까지 갖게 하였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과정에 맞춰 잘 구성돼 모두 즐겁고 흥미로웠다며 행사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민들레반 김효진 교사]

가을운동회를 마친 참가자 전체가 교정 잔디밭에서.



성서대학교교회

가을 운동회

13일, 미취학부서 연합으로 가을 운동회가 학교 잔디밭에서 진행되었다. 미취학부는 연령별로 영아부(1~3세), 유아부(4~5세), 유치부(6~7세)로 이루어져 있다. 천마홀에서 연합예배를 드린 후, 잔디밭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노래와 게임 그리고 2인 계주와 놀이기구를 이용한 슬로우 운동에 유아들은 적극 임했고 교정에는 이들의 소리와 부모들의 멋진 응원이 어우러지며 운동회를 빛내 주었다. 가족이 함께 점심을 나누며 주님이 베푸신 결실의 계절을 만끽하고 화합과 사랑의 온기가 온종일 확인되는 복된 날이 됐다. 한국성서대학교교의 아름다운 잔디밭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다.

[오종철 목사]

나비정원에서 나비를 관찰하고 있는 영유아들



상계백병원
신계백병원

열린 어린이집

17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열린 어린이집 날로 불암산 유아 숲체험장과 나비 정원을 다녀왔다. 학부모가 일일 선생님 자격으로 참석,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나비정원 1층 온실에서 살아있는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과 나비의 움직임 관찰하였고 나비에게 꿀 주는 경험과 생태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2층 곤충학습관에서는 나비, 물장군, 사슴벌레 등 각종 곤충 표본과 자료들이 전시돼, 곤충의 생김새와 특징 등을 탐색하는 시간이었다. 이후 유아 숲체험장의 놀이기구를 활용하며 신체의 움직임을 익히고 땅에 떨어진 도토리알과 열매 등을 구별해 찾는 경험까지 진행되었다. [맑은반 국민지 교사]

안전뮤지컬 ‘들썩들썩 정글숲’ 을 관람 중인 유아들



노원아이종합지원센터

안전 뮤지컬 ‘들썩들썩 정글숲’

16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연계한 안전 뮤지컬 ‘들썩들썩 정글숲’ 공연을 하계동 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에서 진행하였다.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442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공연은 북극곰이 정글숲을 여행하며 동물들과 만나는 에피소드를 통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으로 영유아들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뮤지컬 형식이었다. 아이들은 공연 관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하고 친구를 존중하는 법을 익히는 시간을 보냈다. 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기 어려웠던 교육을 효과적으로 배우게 되어 기쁘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은경 보육전문요원]

흥팀 유아들이 온 힘을 모아 줄다리를 하고 있다.



상계5동어린이집

2024 년 보나 가족의 날

19일, 한국성서대학교 잔디밭에서 ‘보나 가족의 날’ 운동회가 열렸다. 빨간팀과 파란팀으로 나뉘었고 연령 구분없이 한자리에서 학부모, 영유아, 교사들까지 함께 했다. 양탄자 게임, 바구니 옮기기, 줄다리기, 신발 던지기, 조부모 율놀이 등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릴레이 달리기 를 마무리로 운동회는 막을 내렸다.

이후 준비된 커피차와 닭강정을 가족, 친구끼리 나눠 먹으며 추억도 남겼다. 참여한 부모들은 어린이집 모두가 마치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전체에게 감동을 안겨준 특별한 날이었다고 공동체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소감을 말했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가족대잔치 버블쇼 & 버블쇼가 멋지게 진행되고 있다.



늘사랑어린이집

늘사랑 가족대잔치

18일, 영유아와 학부모들은 ‘늘사랑 가족대잔치’ 행사를 개최하였다. ‘대잔치’는 1부 버블쇼&벌룬쇼, 2부 추억의 놀이를 진행하였다.

버블쇼&벌룬쇼는 비가 내려 일기가 안 좋았는데도 신나고 즐거운 놀이가 됐다. 다양한 풍선 아트와 커다란 비눗방울을 활용한 즐거운 분위기가 매 순간 열기를 뿜어냈다. 이어 추억의 놀이가 스탬프 투어였고 ‘점핑말 게임’, ‘딱지치기’, ‘소망 편지 나무’, ‘인생네켓’ 등을 체험하는 게임으로 이어졌다. 뽑기로 선물까지 주어져 더 풍성하고 행복한 잔치날이 되었다. 학부모들은 영유아들과 같은 동심의 마음을 맘껏 느끼고 미소까지 인간 소중한 추억의 날이었다고 말했다. [늘사랑반 최수정 교사]

가정폭력피해자가 만든 비누 공예 작품



월계우리종합지원센터

비누공예 원데이 프로그램

22일, 가정폭력피해자 대상으로 ‘비누 공예’ 원데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스스로 생필품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성취감과 만족감, 삶의 용기까지 얻게 해 준다. 친환경소재 사용이 환경보호에 동참한다는 인식과 원하는 색 조합 구상이 주체성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둘러싼 문제에서 벗어나 만들기 물음이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감 완화까지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정서적 안정과 행복한 경험을 겪고 만든 비누를 볼 때마다 힐링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년에도 상담소에서는 폭력피해자들의 자존감과 심신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자영]

「성서대학동기운동」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4년 9월 21일부터 2024년 10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최정권(총장)	962만원(운영)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100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반세호 목사)	933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반중원(이사장)	12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구좌 유양숙	45구좌 강우정.강 진	일 반
1구좌 강은해 김수연 김유현 김진숙	교직원 및 가족	성서선교회	1구좌 윤수현
문정혜 박재숙 백연옥 이석호	1구좌 김세미	10구좌 다빛교회	단체 및 기관
이정숙 이해철 이현지 장익심	2구좌 문지에 박은주 한정숙	주향교회	1구좌 김포예수사랑교회
정은희 최성자 최인호	3구좌 김창현	2구좌 정우진	20구좌 (주)소원기전
2구좌 황인숙	5구좌 김성호 신지수 유미나	3구좌 주향교회	
3구좌 김지애 민승철 조은경	10구좌 최영태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희 이정훈 이 진 이진경 이진희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해철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윤국 장익심 장희남 전영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하나 정나영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희 조민을 조소연 조수빈 조송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차나리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예본 최윤석 최인호 최중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하수현 하 진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승호 강해든이 설에스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이재은 이종임 이종희 이해성 이현우 임삼일 임수경 임은경 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장은경 장익봉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소정 조은별 최가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혜진 최호성 탁명화 탁윤석 하지혜 허춘선 홍진옥 홍해주 황인숙 등대학교회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석환 김세련 김윤정 김재임 김지애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손승현 우종엽 윤문순 이길순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차주영 최소린 탁현정 황영숙 홍은교회	4만원 노민지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5만원 강경옥 김기숙 김준오 김 진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인순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이유나 이정균 이지은 최경환 최송희 가학교회 월계지역아동센터	6만원 정동주 10만원 김동관 김선옥 김장교 김종숙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함평대동교회	11만원 유선미 22만원 성낙표 100만원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권명희 김민서 김선경 김소미 김주는 김혜미 박윤경 박한울 송지민 양은성 이동기 이미숙	이성란 이성령 이연신 이해윤 이혜정 임동화 장연정 전계화 지중배	2만원 강현중 박은혜 권영진 권윤주 김미옥 김선미 김은희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형정 김형태 김효선 박명규 백순옥 송동식 송세희 신동숙 안민호 연성경 오명이 이경민 이미영 이선경 이승진 이승찬 이은영 장영순 장은정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율이 지은영 최경애 최영숙 최장호 한승천 함은애	3만원 박미영 박보병 배정숙 임종우 전희문 최정규	5만원 손미연 안종현 이재현 정주화 정태리	9만원 황미숙 10만원 김승례 박은정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박관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중현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영우 박묘사 박연지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양승원 유성준 이정은 장경순 전귀선 정현아 이수빈 하희상 허윤민 묘사다교조 하늘사랑	2만원 김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봉재 김세원 김장호 문지에 민경은 박은주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은영 장길정 장지수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조철남 최남영 한성만 한정숙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수연 윤혜진 정지용 추연진
----------------	---	--	---	--	--	------------------------------------	-----------------	---	---	--	--------------------------------	----------------------------	-------------------------	-----------------	--	---	---

기부자 명단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양단아 유미나 이상일 장정순	성서대학교회	1만원 서미영 유현석
6만원	권순범	9천원	2만원 김익남 박문수
7만원	임환석	1만원	3만원 왕순희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성경 김소희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박태용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상아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김정원(신) 김정원(영)	1만8천원	33만7천원 표길홍
11만원	최지은	1만8천원	장자교회
12만원	김덕현 김용기 배민정	1만8천원	4만원 권정숙
13만원	김중완 한진호	1만8천원	5만원 장자교회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1만8천원	주향교회
16만원	신지수	1만8천원	1만원 유병우
20만원	김승욱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휘진	1만8천원	2만원 정우진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1만8천원	6만원 주향교회
35만원	최선희	1만8천원	중앙성서교회
120만원	반중원	1만8천원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962만원	최정권	1만8천원	2만원 강영애 신한성 신영옥 이준구 안춘자
부설기관		1만8천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예 김효진 이유리 이은정 임재택 최미정	1만8천원	5만원 김옥자 이경식 한금례
2만원	윤종찬 진양희 허성보	1만8천원	중앙성서교회 원로·은퇴장로회
3만원	권호진 문유나 박천순 변승이 안미희 위소진 유정현 장나혜	1만8천원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5만원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이지연 차도영	1만8천원	중앙성서교회 바울성교회
10만원	권정아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1만8천원	12만원 황인돈 김순자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1만8천원	15만원 이혜선
20만원	김신덕 차 건	1만8천원	24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35만원	오동준	1만8천원	퇴계원제일교회
권선제일교회		1만8천원	1만원 유재란
1만원	이상규	1만8천원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5만원	권선제일교회	1만8천원	평화교회
동광교회		1만8천원	1만원 안중민 안지선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 김현진	1만8천원	풍암교회
밀알교회		1만8천원	1만원 윤은정
1만원	서효정	1만8천원	함평대동교회
삼일성서교회		1만8천원	1만원 김희경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1만8천원	화도드림교회
서문교회		1만8천원	1만원 권순실
1만원	강선에 박경자 윤인호	1만8천원	5만원 화도드림교회
1만5천원	정찬수	1만8천원	효성교회
20만원	서문교회	1만8천원	1만원 진경숙
		1만8천원	2만원 진은숙
		1만8천원	일 반
		1만8천원	1만원 구필레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명호 김미라 김법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송수용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유혜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현 이사랑 이성영 이우윤 이원주 이우진 이현수 임숙자 조동진 조옥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송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한춘경 황영수
		1만8천원	20만원 (주)소원기건
		1만8천원	30만원 한민제일교회
		1만8천원	50만원 동서환경(주)
		1만8천원	100만원 하이플랜즈종합건축사사무소
		1만8천원	단체 및 기관
		1만8천원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1만8천원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1만8천원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1만8천원	/주님순교회/행복한교회
		1만8천원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1만8천원	/주)에이스익산산업
		1만8천원	/도새기짚/동산지원
		1만8천원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1만8천원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1만8천원	/의정부좋은나무교회
		1만8천원	/주식회사 이수전기
		1만8천원	4만원 플랜팅시즈
		1만8천원	5만원 다드림교회/미사목민교회
		1만8천원	/본도시락 중계점
		1만8천원	/사랑샘교회/상일교회
		1만8천원	/에일아트컬/천성교회
		1만8천원	/한일성서교회
		1만8천원	/행진교회
		1만8천원	10만원 (주)바다나라
		1만8천원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1만8천원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1만8천원	/두암산업(주)/만나교회
		1만8천원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1만8천원	/성북중앙교회/소망교회
		1만8천원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1만8천원	/평안교회(신병수)
		1만8천원	20만원 (주)소원기건
		1만8천원	30만원 한민제일교회
		1만8천원	50만원 동서환경(주)
		1만8천원	100만원 하이플랜즈종합건축사사무소
		1만8천원	소계(20240921~202401020)
		1만8천원	51,338,760
		1만8천원	누계(20240301~202401020)
		1만8천원	579,613,466

한국성서대학교 10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1,310,000원)			
	성서밀알선교회	1,000,000	/ 신지수(교직원) 110,000
	류종주(일반)	100,000	/ 배민정(교직원) 100,000
약정 후원자 (합계 3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360,000원)			
	2구좌	오윤아(동문)	/ 1구좌 박윤경(재학생)
일시납 누계(3.1~10.22) 183,076,061원 약정자 누계(3.1~10.22) 136 구좌 / 16,320,000원			